

늙어가는 전남



일자리 찾아

젊은층들

'脫 전남'

젊은층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전남 농업은 남아있는 노인들의 몫이 됐다. 19일 화순군 주도리 한 논에서 필순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모내기를 앞두고 눈을 고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대론 성장동력 붕괴… 전남 미래발전 없어

기업유치·복지·교육 등 정책개선 서둘러야

전남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1.5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국 평균(1.22명)을 월등히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08·2009년 합계출산율(1.45명)보다도 상승했다.

전남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도 1만6700명으로, 전년도(1만5995명)보다 많았다. 여기에 흰 신고 건수도 지난해 1만461건으로 전년도(1만51건)보다 4.1%(40건) 늘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걸까?

◇출산율도 높은데 왜?=우선,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가 출산율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시·군이 17곳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흥(32.0%)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보성·함평(29.5%), 곡성(29.1%), 진도(28.5%), 신안(28.3%), 장흥(28.1%), 구례(27.4%),

■ '초고령' 고흥 두원면

고흥군 두원면은 전남도내 295개 읍·면·동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두원면 인구(3685명·2010년 말) 중 45.13%인 166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3685명 중 1663명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딱히 병이 없어도 병원을 찾는 뒷수에 두원면 보건소와 각각 2곳의 보건지소·진료소에는 하루종일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노인 위주라 상권이라고 해봐야 식

•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는 출생아 수)

(-11만5023명), 부산(-2만8466명), 대구(-1만1840명)에 이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젊은층이 20대의 탈(脫) 전남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3.6%)을 기록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남 젊은층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대로 가면 미래 없다=급격한 고령화에 젊은층 유출은 전남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돌이키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리모델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끝없이 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기존 복지 정책을 손질하는 한편, 젊은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 유치 외에도 행복 마을·은퇴자 도시 조성 등을 위한 정주 여건·교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단기적인 인구 감소 방안이

■ 전남 노인인구 상위 20위 읍·면·동

연번	시군별 읍면동	전체인구	비율	전남
1	고흥 두원	3,685	1.663	45.13
2	회성 청풍	1,293	571	44.16
3	장흥 부산	1,669	734	43.98
4	영광 계곡	2,731	1,196	43.79
5	보성 노동	1,273	555	43.60
6	해남 계곡	2,612	1,108	42.42
7	보성 겸백	1,414	595	42.08
8	고흥 점암	3,196	1,344	42.05
9	보성 물어	1,508	617	40.92
10	고흥 영남	1,605	653	40.69
11	회성 도암	1,640	663	40.43
12	장흥 정평	2,563	1,036	40.42
13	고흥 도덕	3,507	1,417	40.40
14	원도 청산	2,620	1,055	40.27
15	곡성 목사동	1,590	640	40.25
16	곡성 고달	1,402	560	39.94
17	구례 광의	2,554	1,017	39.82
18	보성 북내	2,020	802	39.70
19	진도 조도	3,253	1,286	39.53
20	고흥 대서	2,816	1,113	39.52

※ 2010.12월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이 적지 않다. 회성군 청풍면도 전체 1293명 중 571명(44.16%)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두원면에 이어 '가장 늙은 읍·면·동 2위'다. ▲장흥군 부산면(노인인구 비율 43.98%) ▲영광군 군남면(43.79%) ▲보성군 노동면(43.60%) ▲해남군 계곡면(42.42%) ▲보성군 겸백면(42.08%) ▲고흥군

점암면(42.05%) 등도 40%가 넘었다.

출생아의 경우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목포(2526명)·여수(2437명)·순천(2165명)·광양(1601명) 등 시·군에 지역이 많았다. 반면, 구례의 출생아는 199명(2009년 기준)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유치·귀농정책 전남활력 되찾을까

3년내 15만여명 일자리 창출
최근 10년새 5960가구 정착

전남에 투자하겠다는 기업과의 협약식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행사다. 떠나는 인구를 되돌아오게 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고용 창출 및 소득 유발 효과가 큰 기업 유치가 절대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최근 귀농인구를 1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인구 감소를 막고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올해 1500가구를 전남으로 끌어들이고 ▲2012년 2000가구

▲2013년 2500가구 ▲2014년 4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와 귀농 정책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업 유치 효과는 언제쯤?=전남도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16개 기업과 총 75조 987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업 중 50.3%인 513개 기업은 이미 부지 매입이나 건축 공사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태다. 지방에서 투자유치 한 건 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전남도는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껏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들의 투자도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3년 이내 도내 15만3490명의 일자리

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올해도 '기업 2000개 유치'를 내걸고 시·군과 산하 사업소에게 목표량을 할당하는 등 운 힘을 쏟고 있다.

◇귀농 '돌아오는 전남' 될까= 지난해 고흥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125가구로, 전남 전체 귀농 인구(768가구) 중 가장 많다. 전남 귀농인구도 ▲2007년 257가구 ▲2008년 289가구 ▲2009년 549가구 ▲2010년 768가구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지난 10년간 5960가구가 전남으로 터전을 옮겼을 정도다.

전남 귀농인구는 전국에서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1112가구)에 이어 16개 시·도 중 두번째로 많고 전국 4067 귀농 가구(9723명·가구당 24명)의 18.9%에 이른다.

전남도는 1950~1960년대생 세대의 은퇴시기를 고려하면 향후 귀농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귀농 유치 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귀농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고흥의 경우 지난 해안 1203명이 줄어 22개 시·군 중 해남(1569명·감소) 다음으로 인구 감소 폭이 커졌다.

'돌아오는' 전남이 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얘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설날 만정

- 김종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서 그게 겁난다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7월 3일, 7월 10일 (단 2회)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 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태국, 필리핀, 중국, 미얀마·전문)

광주 왕복항공 출발!! 1박 2일 골프 7월 3일~4일, 7월 10일~11일 (4명이상 출발가능)

01 해비치 리조트 32평(4인1실) 45홀 - ₩299,000

▶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02 관광호텔 2인1실 36홀 - ₩309,000

▶ 제피로스CC ▶ 사이프러스CC ▶ 라온CC ▶ 아덴힐CC(중 택일)

03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홀 - ₩379,000

▶ 타미우스CC 18홀 ▶ 에버리스CC 27홀

04 그랜드 호텔 2인1실 36홀 - ₩399,000

▶ 세인트포CC ▶ 블랙스톤 CC ▶ 핀크스CC(중 택일) ▶ 오라CC

♣ 기타 다른골프장 및 숙소 선택 가능합니다. 2박3일 골프투어 및 자유여행, 한라산등반 가능합니다. (요금별도 문의)

♣ 공동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수송차량OR카니발급 렌트카

♣ 공동 불포함사항 : 캐디피, 전동카, 식사, 기사팀, 유가활증료

♣ 365일 좌석확보! 여름 바캉스 단체관광,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능!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